

## 오피니언

## 다산포럼

김민환



조선공산당 창당 요원인 조봉암은 광복 이후 박현영이 이끄는 조선공산당에서 뛰쳐나왔다.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내려면 강건한 조직체를 결성해야 한다고 생각해 공산당 창당에 기여했지만, 미군이 남한에 진주하자 그는 공산주의 노선 자체가 실현불가능한 이데올로기로 되고 말았다. 그는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자유국가를 건설하는 데 매진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그는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는 물론 종도 민족주의자들마저 외면한 남한민의 단독선거에 출마하여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는 이승만 정부가 출범하자 초대 농림 장관으로 참여해, 현안이던 토지개혁문제에 대처했다. 그는 유상매수, 유상분배를 골자로 한 농지개혁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보수세력의 반발에 부딪혀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그 뒤 조봉암은 더욱 운동하고 신종해졌다. 그는 진보당을 창당하면서 유럽식 사회민주주의 강령조차 수용하기를 주저했다. 체제가 허용하는 한계 안에서 점진

적으로 개혁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의 신중한 개혁노선은 국민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는 56년 3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이승만 대통령에 패했지만 표자는 크지 않았다.

조봉암이 무사할 수 없는 경쟁자로 부상하자 이승만 정부는 그를 간첩으로 몰

## 조봉암, 조용수, 그리고 리영희

았다. 1심 법원은 국가변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 3심에서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조봉암의 재심 청구마저 기각했다.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50년 7월 31일 그를 처형했다.

조봉암이 죽은 지 1년이 되지 않아 4·19혁명이 났다. 이미 뿌리 뽑힌 줄 알았던 진보주의가 다시 요원의 불길처럼 지식인 사회에 퍼져갔다. 그런 상황에서 조용수에게 극형을 선고했다. 정부는 국제사

이 신문이 역설한 것이 중립화통일론이다.

중립화통일론은 김일성의 고려연방 제 통일론과는 확연히 달랐다. 연방제가 남북이 공존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주장한 것이라면 중립론은 좌우 우를 초월(超絕)하는 제3의 통합을 상정한 것이다.

민족일보는 중립화통일론을 펴면서도 반소(反蘇) 반(反)김일성 노선을 분명히 했다. 미국이 '이승만'과 같은 반민주적이고 반민족적인 '독재자'로 하여금 단독정부를 세우게 하였다면, 소련 역시 '김일성과 같은 괴뢰적 인물'을 내세워 영토와 인

회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61년 12월 21일 그를 처형했다.

조봉암이나 조용수와 비슷한 사상적 족적을 보인 이가 지난 5일 타계한 리영희 교수다. 그의 통일론은 저극히 상식적이다. 그는 남북이 자체 수장을 거쳐 서로 닮아가는 과정을 밟아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이를바 체제수립 통일론을 주장했다.

그는 남북이 상대방의 장점을 수렴할 때 국가통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남북 국민의 사회통합의 길도 열린다고 강조했다. 그가 상정한 이상사회는 친북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라, 개인주의적 시장주의의 요소와 공동체적 사회주의의 요소가 융합한 사회민주주의 사회였다.

이런 태협주의자들에게 우리 사회는 빨갱이 중에서도 상 빨갱이라는 딱지를 붙이기를 서슴지 않았다.

이승만 정권은 조봉암을, 박정희 군부는 조용수를 처형했다. 문필활동에 치중한 리영희는 극형은 면했지만 쓰거나고 간히기를 거절했다. 이제 그런 강박한 시대는 갔다고 할 하지만 시민사회에서 조차 이전에 대한 포옹성 결집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고려대 명예교수·다산연구소 대표〉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고



## 이상태

영국의 철학자 화이트 헤드가 "서양의 2000년 철학은 모두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라고 했을 만큼 플라톤은 서양철학의 중추적 인물이다.

그런데, 그의 본명은 아리스토텔레스이고, 그의 레슬링 교사가 붙여 준 애칭이 플라톤(어깨가 넓은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플라톤은 신체 단련과 지식 획득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자신부터 앞장서 체력 단련에 힘썼다. 실제로 플라톤은 고대 올림픽과 더불어 그리스 4대 제전이었던 이스트미아(Isthmia)에서 두 차례나 우승한 레슬링 선수였다.

플라톤이 우리나라에 다시 태어난다

결을 위해 '초·중등학교 체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정작 학부모의 관심은 학생의 스포츠 동아리 활동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입학사정 관계와 연계시키겠다는 부분에만 관심을 두었다.

학력만을 강조하는 우리의 현실을 끄 돌아보게 하는 자료가 있다. OECD 주요 국가 학생들의 삶에 대한 민족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26개국 중 최하위(평균 84.77%, 한국 53.93%)였다. 반면,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1위(평균 14.98%, 한국 26.46%)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에게 적당한 운동은 선택이 아

## 학교체육, 이대론 안된다

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본다. 몸이 튼튼해야 긍정적인 태도와 활력이 생기고, 뭔가를 해보려는 의지와 자신감이 갖는다는 것은 모두가 경험으로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의 학교 현장은 방과후 체육활동은커녕 학교 체육시간마저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다.

일주일(7)에 5일 이상, 하루 60분 이상 누적(+)+운동을 하는 '7560+운동'의 중요성과 더불어 스트레칭·줄넘기·라인댄스 등과 학교 스포츠클럽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학년이 높아질수록 체육 시간이 줄다가 고장이 되면 시 간표에만 있는 체육 시간이 되기 십상이다.

학생 건강 체력 평가제(PAPS)가 있음에도 체육 교과가 선택과목으로 소외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얼마 전 교과부에서 운동 부족에 따른 비만 학생 증가와 체력 저하 문제 해

닌 필수다. 그래야 성장판이 자극되고 신진대사가 원활해져 키도 크고 뇌와 신경기능이 활성화된다. 또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학업 의욕과 지구력을 기를 수도 있다.

학교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방과후에도 치열한 입시 경쟁에 매몰되어 있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핀란드에서는 쉬는 시간이면 전교생의 야외활동을 유도하는 한편, 체육 교사의 면밀한 관찰 아래 학생들을 스포츠 놀이 문화로 안내한다고 한다. 책상에 옆드려 잠을 청하기 바쁜 우리네 교실과 너무나 대비되는 풍경이다.

정상적인 학교 체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체력을 단련하고, 방과 후에 급우들과 함께 운동에 매진하는 모습이야말로 밝은 내일을 위한 초석이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이용 양체족 강력 단속해야

아이들 기발고사로 앞두고 대형 마트 내에 있는 서점에 문제집을 사주려고 갔던 적이 있다. 많은 사람이 물려들어 주차공간이 널널하지 않아 지하 3층까지 내려가 주차를 하기 위해 여기저기 빙글빙글 찾았다. 그러던 중 장애인 차량 한 대가 들어왔고 장애인 주차공간이 비어있어 금세 그곳에 멀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 순간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비장애인인 탑승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주차요원의 저지에도 장애인 주차공간에 빙글빙글 차를 대고 유유히 나오는 것이었다.

결국 장애인 차량은 자리가 여의치 않자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는 게 보였다.

비싼 차를 타는 만큼 생활의 여유도 있을 터인데 마음과 인격에 여유는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사소해보이지만 우리 주변의 후진국형 문화의 한 단면이 아닌가 생각된다.

▲김명순·광주시 광산구 도천동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기고



## 김선철

지난 7월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초대 권문화 근절을 선언하고 일부 국립립단 체에서부터 시행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평소 초대권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터라 문화수도 광주에서도 이런 운동이 시행되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이제 막 시작한 기획회사지만 내가 기획하는 공연부터 연주자와 협의해 초대권 없는 공연을 기획하고자 했다. 그러던 중 지난 11월 18일 박문경 철로독 주회 기획을 맡게 됐고 연주자와 의논해 기획료는 티켓판매 수익으로 받기로 하고 공연을 진행하였다.

연주자들이 초대권을 보내는 이유는 객석이 텅 비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티

연문의 전화가 많았으나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300석의 좌석 가운데 절반 정도인 150명의 청중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공연을 마치고 헬리스트와 결산을 하면서 이번 음악회를 되새겨봤다.

첫째, 초대권 대신 초대권 폐지에 동참한다는 문구가 신선했던지 언론사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었다. 보통 공연 때는 문화부 기자들만 관심을 가져왔었는데 일반 부서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약간의 이슈화가 되긴 한 것 같다.

둘째, 초대권에 대한 문의는 하나도 없었고, 인터넷 예매에 대한 문의가 많이 왔다. 인터넷 예매를 못 하시는 분은

## 광주에서도 초대권문화 근절 운동을

켓 판매에 대한 부담감에서 오지 않아 생각된다.

독일의 예를 들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발표할 때도 입장권을 받는다. 아무리 작은 음악회라도 초대권을 찾아보기 힘들다. 청중이 때로는 많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청중을 채우기 위해 초대권을 뿐이라는 일은 없다. 단 한 명의 청중이 오더라도 공연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이는 큰 공연장도 마찬가지다. 알프레드 브렌델의 피아노 독주회가 독일이 통독되고 얼마 되지 않아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에서 있었다. 당시 브렌델의 인지도가 동독에서는 없었던 때라 1700석이 넘는 공연장에 300명 정도가 연주를 관람했다. 공연장은 셀링했지만 브렌델은 최상의 연주를 들려주었고, 내가 본 공연 중 가장 좋았던 추억으로 남아 있다.

과연 우리 나라 같았으면 어떻게 하였을까? 아마 연주자에 대한 예의로 표를 뿐이라도 차리를 채웠을 것이다. 청중의 수와 그 공연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우리의 문화가 이런 병폐를 낳지 않았다 생각된다.

이번 공연에는 연주자 가족들을 위한 좌석권을 제외하고는 한 장의 초대권도 없이 진행됐다. 다른 공연과는 달리 공

표가 다 팔릴까봐 전화로 예매하시기도 했다.

셋째, 연주자는 대부분 청중이 티켓을 구입해 본인이 연주하는 음악을 감상한다는 생각에 다른 음악회와는 청중들이 다르게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주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준비과정부터 다른 독주회와는 달랐다고 한다.

넷째, 연주자는 선생님들과 어른들에게는 초대권을 돌리고 학생들에게는 표를 강매하다시피 해서 항상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강매가 하나도 없다 보니 마음이 편했다는 것이다.

음악회를 보고 싶은 사람만 공연장을 찾다 보니 당연히 공연 기분도 최상이었다. 요즘 들어 대부분은 음악회 티켓을 판매하기는 하지만 결국 구입하는 사람은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문제 또한 초대권 폐지를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좋은 연주회에는 초대권이 없더라도 청중들이 찾는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힘들지 모르지만 연주자가 최상의 연주를 청중들에게 들려주고자 준비한다면 머지않아 초대권 폐지 운동이 결실을 뱃지 않을까 생각된다.

〈작곡가·T&T 예술기획 대표〉

## 無等鼓

하 차로를 통해 삼 어디든 갈 수 있게 돼 있다고 한다. 또 4만여명의 주민 전체가 대피할 수 있는 생활기반을 갖춘 난공불락처럼 만들어져 있다.

1949년 장제스(蔣介石)의 국민당 정부가 본토에서 공산당에 밀리며 최후의 보루로 삼았던 진من다오는 마오쩌둥(毛澤東)의 인민해방군이 1958년 44일간 포탄 47만 발을 퍼부었으나 완강하게 버

텼다. 이후 타이완은 섬 전체를 요새화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진من다오를 사이에 두고 갈등을 계속하던 중국 본토와 타이완은 지난 2008년 국민당의 마잉주(馬英九) 총통 당권과 함께 화해 무드로 전환해 양안(兩岸)이 협력하는

‘차이완’(CHIWIWAN·차이나+타이완) 회계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5도를 요새화하는 방법은 타이완의 진من다오(金門島)와 같은 형태로 만드는 것이다. 동서 20km, 남북 5~10km로 중국 본토에서 불과 2km 떨어져 있지만 타이완 부속 섬인 진من다오는 섬 전체가 평 속으로 그물망처럼 이어져 있다.

평 속 3층으로 건설된 진من다오는 지 700m, 높이 100m로 1부 500원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榮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면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신팀 2200-685

경영지원부 2200-515 문화